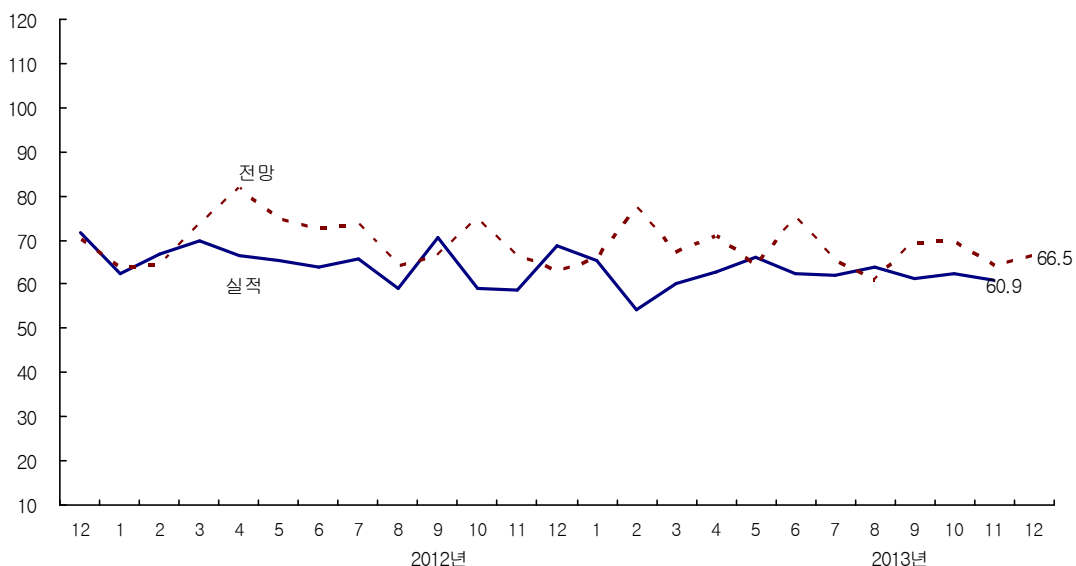


# 2013년 1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11월 CBSI 1.4p 하락한 60.9 기록  
1개월만에 다시 하락, 8개월 내 최저치 기록

- 2013년 11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1.4p 하락한 60.9를 기록함.
  - － 이로써 전월인 10월에 소폭(1.1p) 상승했던 CBSI가 한 달 만에 다시 하락했으며, CBSI는 3월(60.3) 이후 8개월 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 － 11월 CBSI 60.9는 올 들어 2월(54.3), 3월(60.3)을 제외하고는 연내 가장 낮은 수치로 건설기업의 체감경기 침체가 그만큼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냄.
  - － 이는 11월 들어 특별히 건설경기를 개선할만한 요인이 없었던 가운데, 건설/부동산 관련 대책들의 국회 입법화가 계속 지연되면서 건설기업 체감경기 침체 수준이 좀 더 악화된 결과로 판단됨.
  - － 올 들어 CBSI는 1월(65.4)과 5월(66.1)에 60선 중반을 소폭 상회한 것을 제외하면 지속하여 60선 초반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건설기업 체감경기가 계속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경기종합 BSI 추이 >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 및 중견업체 지수는 상승했으나,

중소업체 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함.

- 대형업체 지수는 지난 9월 이후 2개월 연속 지수가 하락했는데, 11월에는 그동안 지수 하락에 따른 통계적 반등 효과로 전월비 소폭(1.1p) 상승한 85.7을 기록
- 지난 9월과 10월 각각 1.9p씩 상승한 중견업체 지수는 11월에도 전월비 8.8p 상승해 60.7을 기록했는데, 지수 자체는 60선에 불과해 체감경기 수준이 여전히 매우 저조함.
- 한편, 중소기업 지수는 전월비 16.1p 하락한 32.0을 기록해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며 체감경기 침체 수준이 매우 악화됨.

< 규모별 · 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

구 분		201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65.4	54.3	60.3	62.8	66.1	62.4	62.1	64.0	61.2	62.3	60.9	64.1	66.5
규모 별	대형	85.7	72.7	69.2	71.4	78.6	78.6	85.7	92.9	85.7	84.6	85.7	76.9	85.7
	중견	66.7	48.0	66.7	66.7	66.7	64.3	50.0	48.1	50.0	51.9	60.7	61.5	66.7
	중소	40.0	40.0	42.6	48.1	50.9	41.2	48.1	48.1	45.3	48.1	32.0	51.9	43.8
지역 별	서울	76.2	63.6	64.8	66.9	68.6	71.6	68.7	70.9	73.1	71.2	74.2	74.6	79.8
	지방	49.0	41.8	53.6	58.7	62.2	52.6	51.9	53.3	39.3	49.0	41.1	48.6	46.8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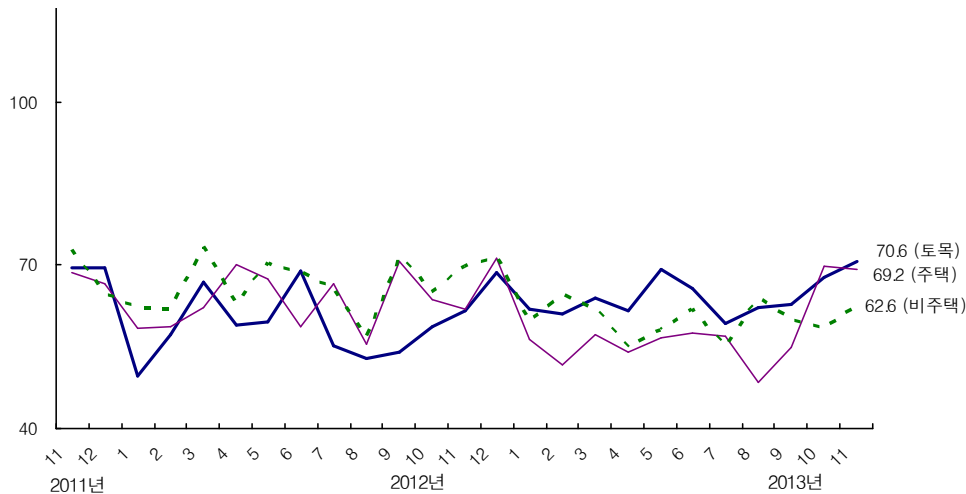
- 한편, 2013년 12월 CBSI 전망치는 11월 실적치 대비 5.6p 상승한 66.5를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5.6p 상승한 것은 12월에는 그만큼 건설경기의 침체 수준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건설기업들이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통상 12월 CBSI는 연말 공공발주 증가 등 계절적 요인에 의해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나, 건설/부동산 관련 대책들의 국회 입법화 과정에 큰 진전이 없을 경우 12월에도 CBSI가 크게 상승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지역별로 11월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서울 업체가 전월 대비 3.0p 증가한 74.2를 기록해 지수가 개선된 반면, 지방 업체는 전월대비 7.9p 하락한 41.1을 기록해 지수가 더욱 악화됨.
  - 서울업체는 전월 대비 3.0p 증가한 74.2를 기록, 지수가 지난 8월부터 4개월 연속 70선에 머물렀.

- 지방업체는 전월 대비 7.9p 하락한 41.1을 기록, 지난 8월 53.3 이후 4개월 연속 50선 미만에 머물며 부진한 모습을 보임.
- 한편, 2013년 12월 전망치의 경우 서울업체는 11월보다 5.6p 증가한 79.8로 80선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함. 지방업체의 경우 5.7p 증가한 46.8로 40선 중반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함.

### 11월 공사 물량지수 전월 대비 6.5p 감소한 67.1 기록

- 2013년 11월 공사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6.5p 감소한 67.1을 기록함.
  - 공사 물량 지수는 지난 6~9월까지 4개월 연속 4개월 연속 50선을 기록하며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음.
  - 지난 10월에 물량 침체 상황이 소폭 개선되고 지속적으로 40~50선에 불과한데 따른 상황 가운데 반등 효과가 크게 작용해 전월 대비 18.6p나 상승하면서 올들어 최대치인 73.6을 기록함.
  - 그러나, 11월에는 지수가 전월 대비 6.5p 하락한 67.1을 기록함.
  - 10월 회복세가 11월에 꺾인 상황으로 결과적으로 물량 침체 상황이 일시적으로 개선되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회복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됨.
  - 11월 지수가 9월 이전 지수보단 5~10p 정도 높은 수준이지만, 60선에 불과해 여전히 건설 물량이 부진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공종별로 토목과 비주택 물량 지수가 개선된 반면, 주택 물량 지수는 전월보다 소폭 하락함.

### < 공종별 공사물량 BSI 추이 >



- 토목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2.9p 상승한 70.6을 기록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며, 지난 2011월 7월 77.6을 기록한 이후 2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 비주택 물량지수는 또한 전월 대비 4.3p 상승한 62.6을 기록, 3개월 만에 증가함.
  - 주택 물량지수는 지난 10월 전월 대비 15.0p 증가한 69.8을 기록해 올 들어 가장 양호한 수치를 보였으나 11월에 0.6p 하락한 69.2를 기록, 지수가 소폭 감소함.
- 업체 규모별로 중견 업체 물량지수가 전월 대비 5.0p 상승했으나, 대형과 중소 업체 지수가 각각 전월 대비 14.8p, 10.0p 감소해 전체 물량지수 하락을 주도함.
- 대형업체의 물량지수는 지난 10월 토목과 주택 물량 지수의 개선에 힘입어 기준선 이상인 107.7을 기록하였음. 11월에는 이보다 14.8p 하락한 92.9를 기록함. 공종별로 주택과 비주택이 각각 전월보다 8.8p, 16.0p 증가했으나 토목이 7.1p 감소, 토목 공종 물량 하락이 대형업체 물량지수 하락을 이끈 것으로 분석됨.
  - 중견업체는 전월보다 5.0p 증가한 64.3을 기록, 5개월 만에 다시 60선을 회복함. 공종별로 토목이 전월보다 20.4p나 증가해 토목 공종 물량 침체 상황의 개선이 중견업체 지수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됨. 주택물량 지수도 올 들어 가장 높은 77.8을 기록한 것 또한 양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구 분		종합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67.1	92.9	64.3	40.0	78.4	50.2
	전망	67.1	85.7	66.7	45.8	79.8	48.4
토목	실적	70.6	92.9	70.4	44.9	84.2	50.8
	전망	67.7	85.7	69.2	44.7	78.3	52.2
주택	실적	69.2	85.7	77.8	40.0	78.3	55.7
	전망	73.0	85.7	76.9	53.5	82.0	59.1
비주택	실적	62.6	92.9	57.1	33.3	76.3	42.0
	전망	68.6	92.9	70.4	38.3	81.9	48.7

주 : 실적은 2013년 11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12월 예측지수임.

- 중소기업체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10.0p 감소한 40.0을 기록, 올해 1월 35.7 이후 두 번째로 부진한 수치를 기록함. 공종별로 주택과 비주택이 각각 전월보다 13.3p, 14.7p 하락해 건축공종의 부진이 중소기업체 물량지수 감소를 이끔.
  - 결과적으로, 대형업체는 물량 지수가 감소하였어도 90선으로 크게 위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중소기업체 물량지수가 40선에 불과해 중소기업체의 물량 상황이 한달 사이에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판단됨.
- 지역별로 서울은 전월 대비 10.6p 감소한 78.4를, 지방도 0.2p 감소한 50.2를 각각 기록함.
- 서울업체의 물량지수는 지난 10월 전월 대비 27.6p 증가한 89.0을 기록함. 그러나, 11월 들어 다시 10.6p 감소한 78.4를 기록 전월보다 물량 상황이 더욱 악화됨.
  - 지방업체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0.2p 감소한 50.2를 기록함.
- 2013년 12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11월 실적과 동일한 67.1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어 물량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 통상 12월 물량지수는 연말 밀어내기 물량의 영향을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올해 12월 물량지수 전망치가 11월과 동일하다는 것은 연말 물량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시사함.
  - 공종별로 주택 물량지수가 73.0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다음으로 비주

택이 68.6, 그리고 토목이 67.7을 각각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 상대적으로 양호,  
자금 관련 상황 어려움**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자금상황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99.0, 98.4를 기록해 타 부문 지수에 비해서 양호하게 나타남.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인력 및 자재 수급 상황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 인건비와 자재비 지수는 각각 84.9, 79.4를 기록해 자재비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 지수는 각각 77.4, 68.3을 기록해 건설기업이 자금상황에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금 · 인력 · 자재 BSI >**

구 분			종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수금	실적	77.4	92.9	78.6	58.0	83.5	68.4
		전망	78.5	85.7	85.2	62.5	83.0	71.7
	자금조달	실적	68.3	92.9	60.7	48.0	78.3	53.2
		전망	63.3	78.6	55.6	54.2	67.9	56.2
인력	수급	실적	99.0	107.1	110.7	76.0	109.3	83.5
		전망	101.3	107.1	114.8	79.2	111.8	85.7
	인건비	실적	84.9	100.0	96.4	54.0	96.0	68.4
		전망	86.8	100.0	96.3	60.4	96.0	73.3
자재	수급	실적	98.4	114.3	96.4	82.0	108.4	83.5
		전망	100.0	114.3	96.3	87.5	108.3	87.4
	비용	실적	79.4	100.0	82.1	52.0	88.8	65.3
		전망	80.4	100.0	77.8	60.4	88.4	68.7

주 : 실적은 2013년 11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12월 예측지수임.

끝.